

# 『黃帝內經』의 死證에 대한 考察

丁彰炫·白裕相·張祐彰·金度勳

慶熙大學校校 韓醫科大學 韓醫學科 原典學教室

## A Study on Sajeung(死證) presented in 『Huangjenaegyeong(黃帝內經)』

Jeong Chang-Hyun, Baik You-Sang, Jang Woo-Chang, Kim Do-Hoon  
Dep.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of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The word "Sajeung(死證)" in 『Huangjenaegyeong(黃帝內經)』 includes a warning to lead to death if it is treated wrongly as well as a definite diagnosis saying that it is impossible to cure diseases. A disorder condition of the body means that the balance of Eum-yang(陰陽) are broken or O-haeng(五行) doesn't have a good circulation.

The prediction to progress is very important as much as decision of whether it is Sajeung or not because it can be changed by the time of day or night and also by changes of the seasons.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relations between Sangsaeng(相生) and Sanggeuk(相克) of O-haeng patients' diseases fall into a dangerous condition at the time under control. But sometimes it can be a severe illness even they are full of vigor. When living and dying has to be determined, it is emphasized the significance of inspection, auscultation and olfaction, inquiring and palpation(望聞問切法). Especially this is the key point to study people's face and pulse.

key words : 『Huangjenaegyeong(黃帝內經)』, Sajeung(死證), pulse

### I. 序論

\* 교신저자 : 백유상,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  
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강사

E-mail : baikys@hanmir.com Tel : 02-961-9183

\* 본 논문은 경희대학교 개교55주년 기념 학술진흥특별  
연구지원과제로서 작성되었음. 연구 과정에서 원래 제  
목 중 '死候'를 더욱 의미가 확장된 '死證'으로 바꾸었음  
을 밝힘.

現代의 韓醫學은 근대 이전의 韓醫學에 비  
하여 그 임상적 치료 대상의 범위가 줄어들었  
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의료제도 속에  
서 중심의학으로서의 자리를 현대 서양의학에  
게 넘겨준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 증환자의 경우 한의학이 그 대  
부분의 치료 및 관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韓醫學의 근간이 되는 『黃帝內經』의 條文들을 살펴보면 죽을 병, 즉 死證<sup>2)</sup>에 대하여 설명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條文들에 대하여 고찰해 봄으로써 과거 한의학이 死證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미루어볼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응급의학 또는 치료의학으로서의 한의학 임상 범위를 넓혀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內經』의 死證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우선 죽을병이 가지고 있는 醫哲學的 의미를 음미해볼 수 있을 것이며 死證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어떻게 가능했으며 死證에 해당하는 病症에는 그 당시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가를 알아볼 수 있다.

韓醫學에서는 東洋哲學의 영향 하에 질병 또는 죽음에 대하여 언젠가는 받아들여야 할 필연적인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가에 醫學的 관심이 모아져 있다. 그리고 養生의 잘못과 誤治로 인하여 죽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證候들이 나타났을 때 위험한 상황임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한의학의 望聞問切 四診 중에서 色과 脈을 통하여 병의 예후를 예측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診斷의 의미는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외견상의 증상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色脈으로 神과 氣를 관찰하여 미리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醫學의 본 임무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內經』에 말하는 死證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 어떠한 경우에 우

리 몸에 부조화가 생겨서 위중한 상태에 빠지는가의 機轉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예후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위급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때를 陰陽의 盛衰와 五行의 相生 相克 관계를 통하여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死證을 구별하는 진단법에서 脈과 色을 보는 방법의 중요성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 II. 本論

### 1. 死證의 개념

‘死證’이란 ‘死症’ 또는 ‘死候’ 등의 개념을 포괄한다. 이 중 ‘死候’는 죽음에까지 이르는 병의 徵候를 의미하고 ‘死症’이란 죽을병의 구체적인 症狀 자체를 의미하는 반면에 ‘死證’이란 여기에 더하여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근본 原因과 機轉 그리고 구체적인 過程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死證이란 크게 보면 한의학에서 말하는 證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

『黃帝內經』에서 말하는 死證이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크게 보면 죽음에까지 이른 상태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확실하게 죽는 상황으로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단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확실한 진단 이외에 만약에 잘못 대처하였을 때에는 죽음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는 경고의 내용도 있으며 또한 의식불명의 假死 상태를 死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診斷에 있어서는 生死를 결정할 만큼 중요하고 세밀하며 깊이 감추어져 있는 부분까지 찾아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色과 脈에 있어서 이미 기운이 脫하여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우선 假死 상태의 死證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후로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위중한 疾患과 그에 대한 豫後 그

2) 死證 : 死證이란 死症 또는 死候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死候가 죽음에까지 이르는 徵候를 의미하고 死症이 죽을병의 症狀 자체를 의미하는 반면에 死證이란 여기에 더하여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근본 原因과 機轉 및 구체적인 過程까지 포괄하는 證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

리고 診斷에 있어서 死證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假死 상태의 死證

『內經』에서 말하는 死證 중에서 죽은 직전을 의미하거나 실제로 죽은 것으로 단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 아니라 단지 의식을 잃은 상태 즉 假死 상태를 말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靈樞·九鍼十二原』에서는 假死 상태를 陰陽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다.

凡將用鍼，必先診脈，視氣之劇易，乃可以治也。五藏之氣，已絕於內，而用鍼者，反實其外，是謂重竭，重竭必死，其死也靜，治之者，輒反其氣，取腋與膺，治之者，輒反其氣，取腋與膺。五藏之氣，已絕於外，而用鍼者，反實其內，是謂逆厥，逆厥則必死，其死也躁，治之者，反取四末刺之，害中而不去則精泄，害中而去則致氣，精泄則病益甚而恆，致氣則生爲癰瘍。(靈樞·九鍼十二原)

五臟의 기운이 이미 안에서 끊어져 있는데 鍼을 시술한 사람이 반대로 그 밖을 實하게 하면 이를 일러 거듭 기운을 메마르게 하였다 말하니 반드시 쓰러져 의식을 잃게 되고 그 양태가 고요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여기서 死라는 것은 실제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죽은 듯이 쓰러져 있는 의식불명 상태 즉, 假死 상태를 말한다. 반대로 五臟의 기운이 이미 밖에서 끊어져 있는데 반대로 그 안을 실하게 하면 이것을 逆厥이라 하니 반드시 의식을 잃어 쓰러지게 되고 그 양태가 움직임이 많다고 하였다. 안으로 陰氣가 衰竭하여 쓰러질 때는 움직임이 고요하고 안에 기운이 실할 때 더욱 기운을 뭉치게 하면 그것이 위로 치솟아 厥證<sup>3)</sup>이 되어 비록 의식을 잃고 있지만 몸을 많

3) 厥證이란 기운이 밖으로 뿔어나가지 못하고 안으로만 모여서 四肢는 싸늘해지고 정신을 잃으며 내부에

이 움직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死라는 표현이 가지는 의미는 실제로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의식불명으로 쓰러져서 활동을 못하는 것을 말한다. 또 다른 『素問·舉痛論』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寒氣客於五藏，厥逆上泄，陰氣竭，陽氣未入，故卒然痛死不知人，氣復反則生矣。(素問·舉痛論)

寒氣가 五臟까지 침입하면 厥氣가 거슬러 올라 위로 넘쳐서 陰氣는 메마르고 陽氣는 아직 회복되지 못하게 되니<sup>4)</sup> 갑자기 아픔을 느끼면서 쓰러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나 기운이 회복되면 다시 깨어난다고 하였다. 이것은 차가운 厥氣가 上焦로 올라와서 心의 陽氣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여 갑자기 아파서 쓰러지는 것을 말한다. 기운이 회복되면 다시 살아난다고 한 것으로 보아 정말로 치명적인 상태가 아니라 단순한 의식불명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이 厥證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의식불명인 死의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素問·調經論』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故氣并則無血，血并則無氣，今血與氣相失，故爲虛焉。絡之與孫脈俱輸於經，血與氣并則爲實焉，血之與氣并走於上則爲大厥，厥則暴死，氣復反則生，不反則死。(素問·調經論)

厥證이 심한 경우, 즉 大厥이 오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데 기운이 다시 회복되면 살아나고 회복되지 못하면 죽는다고 하였다. 厥證은 일반적으로 몸의 체간 쪽으로 기운이 쏠리는 기전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욱 증상이 심해져서 오히려 기운이

는 오히려 熱이 발생할 수도 있는 병을 말한다.

4) 『靈樞·通天』에서는 “太陽之人，多陽而少陰，必謹調之，無脫其陰而瀉其陽，陽重脫者，易狂，陰陽皆脫者，暴死不知人也。”라 하여 陰氣와 陽氣가 모두 脫하면 暴死에까지 이른다고 하였다. 이 때의 暴死도 假死 상태를 의미한다.

중심으로 모이다가 다시 위로 치솟아 올라서 정신을 잃게 되는 것이다<sup>5)</sup>. “厥則暴死”의 ‘死’字는 假死 상태를 말하고 뒤에 “不反則死”의 ‘死’字는 실제로 죽는다는 표현이다. 이상의 條文들을 살펴보면 죽는다는 死의 표현은 실제로 죽음의 상태에 도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죽은 것처럼 보이는 상태 즉,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假死 상태를 말할 수 있다.

2) 重證

우리 몸에서 질병의 상태를 陰陽의 조화가 깨지거나 五行의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조화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중되거나 오래 지속되어 깊은 병이 되면 위중한 상태에 빠져 죽음을 예고하게 된다. 또한 五行의 相克으로 병이 진행되어 취약한 臟腑가 손상을 받거나 醫師의 잘못으로 誤治하여 병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1) 陰陽 調和 이상으로 인한 死證

우리 몸의 陰陽 활동에 不調和가 생겨 심해지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다. 예를 들어 陰陽의 기운이 각각 지나치게 盛해져서 상대의 氣를 억제하거나, 陰陽이 모두 함께 衰弱해지거나 또는 陰陽이 서로 뒤섞여서 본래의 특성을 잃어 버렸을 경우에 이와 같은 위중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우선 陽勝과 陰勝 각각의 경우에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며 그 예후는 어떠한가 살펴보자.

帝曰，法陰陽奈何。岐伯曰，陽勝則身熱，腠理開，

喘麤爲之僂仰，汗不出而熱，齒乾以煩寃腹滿，死，能冬不能夏。陰勝則身寒汗出，身常清，數慄而寒，寒則厥，厥則腹滿，死，能夏不能冬。此陰陽更勝之變，病之形能也。(素問·陰陽應象大論)

陽이 勝하면 몸에 熱이 많이 나서 오히려 피부가 단하니 숨을 헐떡이며 몸을 상하로 움직이고 땀이 나지 않아 발산이 안되어 다시 熱이 오르게 되어 치아가 마르고 마음이 답답하고 배가 그득해지니 결국 죽는다고 하였다. 반대로 陰이 勝하면 몸이 차가워지면서 식은 땀이 나는데 자주 떨리면서 출다가 厥證이 오고 厥證 상태에서 배가 그득해지면 죽는다고 하였다<sup>6)</sup>. 이 두 가지 경우에 모두 陰陽의 盛함을 억제하는 계절에는 오히려 병이 나아지지만 반대로 기운을 더욱 盛하게 하는 계절에는 병이 심해진다고 하였다. 이것이 陰陽이 서로 갈마들어 勝하는 變故에서 病의 형태라고 하였다.

『靈樞·脈度篇』에서는 關格的 病증을 陰盛과 陽盛으로 설명하면서 陰陽이 모두 盛해진 경우에는 關格이 일어나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게 된다고 하였다.

陰氣太盛，則陽氣不能榮也，故曰關。陽氣太盛，則陰氣弗能榮也，故曰格。陰陽俱盛，不得相榮，故曰關格。關格者，不得盡期而死也。(脈度)

陰氣가 크게 盛하여 陽氣가 능히 피어나지 못하는 것을 일러 內關이라 하고 반대로 陽氣가 크게 盛하여 陰氣가 능히 피어나지 못하는 것을 外格이라 하니 이 경우에 陰陽이 함께 盛하여 서로 기운이 피어나지 못하게 되면 關格이 동시에 일어나서 결국 원래의 期限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이다. 關格이라 위아래가 모두 막혀서 소통이 안되는 것으로 우

5) 『素問·刺癰』에서 “肝癰者，令人色蒼蒼然太息，其狀若死者，刺足厥陰見血。”라 하여 역시 假死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이 때에는 肝氣가 鬱結되어 發散되지 못하여 정신을 잃은 것으로 肝經의 瀉血하여 소통시키라고 하였다.

6) 『素問·玉版論要』에서 “上爲逆，下爲從，女子右爲逆，左爲從。男子左爲逆，右爲從。易重陽死，重陰死。”라 하여 陰陽이 어느 한 쪽으로 지나치게 亢盛해졌을 때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른다고 하였다.

리 몸의 陽運動과 陰運動이 모두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결과이다<sup>7)</sup>.

陰陽이 각각 자신의 특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뒤섞여서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이를 또한 陰陽交라 하는데 重病에 해당한다. 『素問·評熱病論』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黃帝問曰，有病溫者，汗出輒復熱，而脈躁疾不爲汗衰，狂言不能食，病名爲何，岐伯對曰，病名陰陽交，交者死也，帝曰，願聞其說，岐伯曰，人所以汗出者，皆生於穀，穀生於精，今邪氣交爭於骨肉而得汗者，是邪却而精勝也，精勝則當能食而不復熱，復熱者邪氣也，汗者精氣也，今汗出而輒復熱者，是邪勝也，不能食者，精無俾也，病而留者，其壽可立而傾也，且夫熱論曰，汗出而脈尚躁盛者死，今脈不與汗相應，此不勝其病也，其死明矣，狂言者是失志，失志者死，今見三死，不見一生，雖愈必死也。(素問·評熱病論)

위에서 陰陽이 모두 盛하여 서로 邪氣로 작용하면 결국 陰陽이 모두 피어나지 못하여 死證이 된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이 陰陽이 모두 脫하여 안팎의 기운이 모두 없어진 경우에 위급한 병에 빠지게 된다.

太陽之人，多陽而少陰，必謹調之，無脫其陰，而瀉其陽，陽重脫者，易狂，陰陽皆脫者，暴死不知人也。(靈樞·通天)

『靈樞·通天篇』에서는 陰이 이미 脫한 상태에서 陽을 다시 瀉하여 脫하게 만들면 狂症이 나타나니 이와 같이 陰陽이 모두 脫하면 갑자기 쓰러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였다. 陰陽의 表裏가 모두 병이 난 것에 대하여 『靈

樞·九鍼十二原』에서는 五臟과 經絡으로 나누어서 표현하고 있다.

夫氣之在脈也，邪氣在上，濁氣在中，清氣在下，故鍼陷脈則邪氣出，鍼中脈則濁氣出，鍼太深則邪氣反沈病益，故曰，皮肉筋脈，各有所處，病各有所宜，各不同形，各以任其所宜，無實無虛，損不足而益有餘，是謂甚病，病益甚取五脈者死，取三脈者恆，奪陰者死，奪陽者狂，鍼害畢矣，刺之而氣不至，無問其數，刺之而氣至，乃去之，勿復鍼，鍼各有所宜，各不同形，各任其所，爲刺之要，氣至而有效，效之信，若風之吹雲，明乎若見蒼天，刺之道畢矣。(靈樞·九鍼十二原)

즉, 五脈이 나타나면 五臟이 병든 것으로 내부의 陰氣가 脫한 것이고 三脈이 나타나면 외부 三陽의 기운이 脫한 것이다. 五臟六腑는 속에 위치하여 陰에 속하는데 그 중에서도 五臟이 중심에 있어 精氣를 갈무리하여 우리 몸을 다스리게 된다. 그리고 체표에서는 十二經脈이 있어서 氣血이 밖으로 나와 그를 쫓아 순환을 하여 활동을 하게 된다. 즉, 陰陽의 기운을 五臟의 精氣 즉 陰氣와 體表의 陽氣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때 五臟의 精氣가 모두 脫하면 쓰러져 의식을 잃고 체표의 陽氣가 脫하면 흩어져서 狂症이 나타나게 된다. 臟腑와 經絡 또는 榮氣와 衛氣 등 陰陽이 모두 병들어서 死證에 이르는 경우를 『素問·熱論』과 『素問·逆調論』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三陰三陽，五藏六府，皆受病，榮衛不行，五藏不通，則死矣。(素問·熱論)

帝曰，人之肉苛者，雖近衣絮，猶尚苛也，是謂何疾，岐伯曰，榮氣虛，衛氣實也，榮氣虛則不仁，衛氣虛則不用，榮衛俱虛，則不仁且不用，肉如故也，人身與志不相有，曰死。(素問·逆調論)

「熱論」에서는 三陰三陽 經絡과 五臟六腑가

7) 『靈樞·終始』에서 “人迎與太陰脈口俱盛四倍以上，命曰關格，關格者，與之短期。”라 하여 陽氣와 陰氣가 모두 盛하여 人迎脈과 寸口脈이 함께 盛하게 뛰는 것이 關格으로서 짧은 기간 안에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모두 병을 받는 경우인데 이 때에는 三陰三陽의 氣는 밖을 循行하므로 陽氣로 볼 수 있고 五臟六腑의 氣는 內部에서 순환하므로 陰氣로 볼 수 있다. 이렇게 陰陽의 氣가 모두 병들었을 경우에 榮衛가 흐르지 않고 五臟의 五行循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죽게 된다는 것이다.

『逆調論』에서는 榮氣가 虛하면 不仁이 생기고 衛氣가 虛하면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니 만약 榮衛가 함께 허해진다면 不仁과 팔다리를 쓰지 못하는 병이 생긴다고 하였다. 이렇게 우리 몸과 의지가 따로 분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죽는다는 것이다. 우리 몸의 形體를 陰으로 보고 精神意志를 陽으로 본다면 이 경우에도 陰陽이 모두 병들어서 죽음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2) 五臟病

위에서 陰陽 表裏가 병들어 死證이 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특히 내부의 陰氣가 병들었을 경우에 死가 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陰氣란 바로 五臟의 精氣를 말한다. 五臟의 精氣는 우리 몸의 가장 깊숙한 부위에 위치하여 우리 몸 전체를 조절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五臟에까지 병이 들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까지 병이 미쳐서 상태가 위중함을 말하는 것이다. 『素問·三部九候論』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五臟已敗, 其色必夭, 夭必死矣.(素問·三部九候論)

五臟의 精氣가 이미 敗하면 밖으로 그 色이 반드시 일찍 죽을 色으로 나타나니 이러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였다. 五臟의 상태가 얼굴의 色으로 그대로 드러나므로 이 때에는 望診을 통하여 死候를 살피게 된다. 또한 『素問·脈要精微論』에서는 五臟이 우리 몸의 가운데에서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外部의 形

體를 강하게 만들어 역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五藏者, 中之守也. 中盛藏滿, 氣勝傷恐者, 聲如從室中言, 是中氣之濕也. 言而微, 終日乃復言者, 此奪氣也. 衣被不斂, 言語善惡, 不避親疎者, 此神明之亂也. 倉廩不藏者, 是門戶不要者. 水泉不止者, 是膀胱不藏也. 得守者生, 失守者死. 夫五藏者, 身之強也. 頭者精明之府, 頭傾視深, 精神將奪矣. 背者胸中之府, 背曲肩隨, 府將壞矣. 腰者腎之府, 轉搖不能, 腎將憊矣. 膝者筋之府, 屈伸不能, 行則僂附, 筋將憊矣. 骨者髓之府, 不能久立, 行則振掉, 骨將憊矣. 得強則生, 失強則死.(素問·脈要精微論)

五臟의 精氣는 안에 위치하여 우리 몸의 생명활동이 제대로 유지되도록 항상성을 지키고 또한 외부로부터 邪氣가 침입하여 들어올 때에도 精氣를 발휘하여 邪氣를 몰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脈要精微論』에서 五臟은 가운데에 지키는 것으로서 이 지킴을 얻은 자는 살고 지킴을 잃은 자는 죽는다고 한 것이다. 또한 우리의 신체는 외부에 위치하고 여기에는 經絡이 있어서 氣血이 순행하고 있는데 역시 五臟의 精氣가 충실할 때에는 筋骨肌肉의 形體도 제대로 자양을 받아서 튼튼해지니 이것을 강하다고 표현하였다. 신체에 있어서 강함을 얻으면 살고 강함을 잃으면 죽을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의 죽음이란 당장 쓰러져 위급한 상황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장차 앞으로 精氣가 약해져서 쉽게 노화가 일어나고 질병이 발생하여 결국 죽음으로 이어질 것임을 경고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五臟의 중요성이 『內經』에서 자주 강조되고 있는데 死證 이외의 다른 일반病症이 있을 경우에도 만약 五臟까지 그 邪氣가 침입하였다면 역시 死證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痺症과 癰疽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帝曰，痺，其時有死者，或疼久者，或易已者，其何故也。岐伯曰，其入藏者死，其留連筋骨間者疼久，其留皮膚間者易已。(素問·痺論)

故癰腫，寒氣化爲熱，熱勝則腐肉，肉腐則爲膿，膿不瀉則爛筋，筋爛則傷骨，骨傷則髓消，不當骨空，不得泄瀉，血枯空虛，則筋骨肌肉不相榮，經脈敗漏，薰於五藏，藏傷故死矣。(靈樞·癰疽)

같은 痺症이라 하더라도 病邪가 臟까지 들어간 경우에는 죽고 筋骨 간에 머물렀을 때는 病이 오래 가며 단지 皮膚 간에 머물렀을 때는 쉽게 낫는다고 하였다. 癰疽의 경우에도 筋骨肌肉이 모두 살아나지 못하여 經脈이 상하여 氣血이 흩어지고 五臟까지 薰蒸된 경우에는 죽는다고 하였다. 우리 몸에서 五臟이 가장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五臟까지 病이 들면 죽음에까지 이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 (3) 相克所傳

병이 위중하게 되는 또 다른 경우는 五行의 相克 관계로 병이 전해질 때이다. 相克 관계에서 克함을 받는 臟腑는 원래 자신이 취약한 부분으로 邪氣가 침입하여 들어오는 것이므로 病이 더욱 위중해지는 것이다.

五藏受氣於其所生，傳之於其所勝，氣舍於其所生，死於其所不勝，病之且死，必先傳行，至其所不勝，病乃死。此言氣之逆行也，故死。肝受氣於心，傳之於脾，氣舍於腎，至肺而死。心受氣於脾，傳之於肺，氣舍於肝，至腎而死。脾受氣於肺，傳之於腎，氣舍於心，至肝而死。肺受氣於腎，傳之於肝，氣舍於脾，至心而死。腎受氣於肝，傳之於心，氣舍於脾，至脾而死。此皆逆死也。一日一夜五分之，此所以占死生之早暮也。(玉機眞藏論)

자신이 스스로 이기지 못하는바 즉 자신을 원래 克하는 臟腑가 주관하는 시기에 이르러 죽게 된다고 하였는데 예를 들어 肝은 肺가

주관하는 때에 이르러 죽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氣의 逆行이라 하였다. 일반적으로 臟의 기운이 盛할 때에는 자신이 克하는 쪽으로 병이 옮겨 가거나 혹은 병을 가중시켜서 위중한 상태를 만들게 된다<sup>8)</sup>.

진단에 있어서도 脈과 色을 비교해 볼 때 서로 相克인 관계의 色脈이 나타나면 위험한 것으로 보았다. 다음은 『靈樞·邪氣藏府病形』의 내용이다.

黃帝曰，願卒聞之。岐伯答曰，色青者，其脈弦也。赤者，其脈鉤也。黃者，其脈代也。白者，其脈毛。黑者，其脈石。見其色而不得其脈，反得其相勝之脈，則死矣。得其相生之脈，其病已矣。(靈樞·邪氣藏府病形)

色과 脈을 서로 參參하여 보아야 하는데 만약 色 맞지 않는 脈이 나타날 경우 서로 相克인 脈이 나타나면 죽고 서로 相生하는 脈이 나타나면 그 병이 낫는다고 하였다<sup>9)</sup>.

### (4) 誤治로 인한 악화

醫師의 치료 잘못으로 인하여 病이 위중한 상태에 이르기도 한다. 『素問·刺禁論』에서는 刺鍼을 잘못하였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설명하였다. 주로 큰 血脈을 잘못 刺鍼하여 出血이 많아 죽게 된다고 하였다.

刺跗上，中大脈，血出不止，死。刺面，中溜脈，不幸爲盲。刺頭中腦戶，入腦立死。刺舌下中脈

8) 『素問·玉機眞藏論』에서도 “黃帝曰，五藏相通，移皆有次。五藏有病則各傳其所勝。不治，法三月若六月，若三日若六日，傳五藏而當死，是順傳其所勝之次。故曰，別於陽者，知病從來。別於陰者，知死生之期。言知至其所因而死。”라 하여 所勝의 相克 관계로 病이 傳하면 죽게 된다고 하였다.

9) 『素問·平人氣象論』에서 “肝見庚辛死，心見壬癸死，脾見甲乙死，肺見丙丁死，腎見戊己死，是爲眞藏見，皆死。”라 五臟의 眞藏脈이 각각 자신을 勝하는 日辰에 나타나면 죽는다고 하였다. 이것도 역시 五行의 相克 관계로 병이 나타나면 죽는 경우이다.

太過, 血出不之爲瘡. 刺足下布絡中脈, 血不出爲腫. 刺郛中大脈, 令人仆, 脫色. 刺氣街中脈, 血不出, 爲腫鼠僕. 刺脊間中髓, 爲偃. 刺乳上中乳房, 爲腫根蝕. 刺缺盆中內陷, 氣泄, 令人喘欬逆. 刺手魚腹內陷爲腫. 無刺大醉, 令人氣亂. 無刺大怒, 令人氣逆. 無刺大勞人, 無刺新飽人, 無刺大饑人, 無刺大渴人, 無刺大驚人. 刺陰股中大脈, 血出不止, 死. 刺客主人內陷中脈, 爲內漏, 爲聾. 刺膝臑出液, 爲跛. 刺臂太陰脈, 出血多, 立死. 刺足少陰脈, 重虛出血, 爲舌難以言. 刺膺中陷中肺, 爲喘逆仰息. 刺肘中內陷, 氣歸之, 爲之不屈伸. 刺陰股下三寸內陷, 令人遺溺. 刺掖下脇間內陷, 令人欬. 刺少腹中膀胱, 溺出, 令人少腹滿. 刺臍腸內陷, 爲腫. 刺匡上陷骨中脈, 爲漏, 爲盲. 刺關節中, 液出, 不得屈伸. (素問·刺禁論)

발등의 大脈을 刺鍼하였을 때 出血이 그치지 않아 죽으며, 얼굴의 溜脈을 刺鍼하였을 때는 눈이 멀거나 腦를 손상하여 바로 죽는다고 하였다. 또한, 사타구니 중 代脈을 자침하였을 때에도 출혈이 그치지 않아 죽으며 관의 太陰脈을 자침하여 출혈이 많아도 곧 죽는다고 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던 『九鍼十二原』의 내용에서도 잘못 침을 사용하여 죽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sup>10)</sup>.

### 3) 죽음에 이르는 특정 病症

일반적인 질환뿐만 아니라 여러 病症 중 특히 예후가 좋지 못한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素問·玉機眞藏論』에서는 五虛死와 五實死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黃帝曰, 余聞虛實以決死生, 願聞其情. 岐伯曰, 五實死, 五虛死. 帝曰, 願聞五實五虛. 岐伯曰, 脈盛, 皮熱, 腹脹, 前後不通, 悶瞀, 此謂五實.

10) 앞에서 『靈樞·九鍼十二原』에서 醫師가 잘못 치료하여 陰陽이 偏盛하여 重竭이나 遊厥이 되었을 경우에 죽는다고 하였다.

脈細, 皮寒, 氣少, 泄利前後, 飲食不入, 此謂五虛. 帝曰, 其時有生者何也. 岐伯曰, 漿粥入胃, 泄注止, 則虛者活; 身汗得後利, 則實者活. 此其候也. (素問·玉機眞藏論)

五實과 五虛는 모두 위중한 상태인데 脈이 盛하거나 皮膚에 熱이 있거나 배가 부르거나 대소변이 통하지 않거나 가슴이 답답하면서 머리가 흐려지는 것들을 다섯 가지 實症이라 하였고 반대로 脈이 가늘거나 皮膚가 차갑거나 기운이 없거나 泄瀉와 遺尿가 있거나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을 다섯 가지 虛症이라 하였다. 虛症의 경우 죽을 먹을 수 있고 설사를 그치면 살아나고 實症의 경우 땀을 낸 후 대변이 통하면 살아난다고 하였다.

『素問·陰陽別論』에서는 死陰과 生陽의 병증에 대하여 말하였는데 모두 死證에 해당한다.

陰爭於內, 陽擾於外, 魄汗未藏, 四逆而起, 起則熏肺, 使人喘鳴. 陰之所生, 和本曰和. 是故剛與剛, 陽氣破散, 陰氣乃消亡. 淖則剛柔不和, 經氣乃絕. 死陰之屬, 不過三日而死, 生陽之屬, 不過四日而死. 所謂生陽死陰者, 肝之心, 謂之生陽. 心之肺, 謂之死陰. 肺之腎, 謂之重陰. 腎之脾, 謂之辟陰, 死不治. (素問·陰陽別論)

여기서 生陽死陰이란 眞氣가 끊어져 가는 순서를 말하는 것으로 肝心肺腎脾의 순서로 병이 심해지게 된다. 生陽이란 肝의 藏氣가 먼저 끊어지고 이어서 心의 藏氣가 끊어지는 것이고 死陰이란 心의 藏氣가 끊어지고서 肺로 옮겨가는 것이다. 또한 腎의 精氣가 끊어져서 脾로 옮겨가는 경우에도 陰氣가 고립되는 辟陰이라 하여 치료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 2. 死證의 예후

診斷上 死證의 판정 못지않게 언제 위급하게 되는가 하는 예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예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타

나는데 가깝게는 하루의 晝夜에 따라서, 멀리는 1년 중 四季節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또한 相生 相克의 관계에 따라서 서로 克하는 시간에 가장 위급해 지므로 그에 따라 예후를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三部九候論」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必先知經脈，然後知病脈，眞藏脈見者，勝死。足太陽氣絕者，其足不可屈伸，死必戴眼。帝曰，冬陰夏陽奈何。岐伯曰，九候之脈，皆沈細懸絕者爲陰，主冬，故以夜半死。盛躁喘數者爲陽，主夏，故以日中死。是故寒熱病者，以平旦死。熱中及熱病者，以日中死。病風者，以日夕死。病水者，以夜半死。其脈乍疎乍數乍遲乍疾者，日乘四季死。形肉已脫，九候雖調，猶死。七診雖見，九候皆從者不死。所言不死者，風氣之病，及經月之病，似七診之病，而非也，故言不死。若有七診之病，其脈候亦敗者，死矣，必發噦噫。必審問其所始病，與今之所方病，而後各切循其脈，視其經絡浮沈，以上下逆從循之，其脈疾者不病，其脈遲者病，脈不往來者，死，皮膚著者，死。(素問·三部九候論)

脈이 沈細하여 陰에 속하는 병일 경우에는 겨울에 주로 심해지고 하루 중에는 한밤중에 죽게 되며, 脈이 盛하고 혈떡이면서 빨리 뛰 어 陽에 속하는 병일 경우에는 여름과 한낮에 심해진다고 하였다. 또한 寒熱病은 아침 새벽에 위험해지며 風病은 저녁 무렵에 위험해진다고 하였다.

#### (1) 陰陽(晝夜, 四時)

陰이 성할 때에는 여름에는 견딜 수 있으나 겨울이 되었을 때는 陰은 더욱 승하고 陽氣가 약해지므로 위급하게 된다. 陽이 성할 경우에는 오히려 겨울에는 견딜 수 있으나 여름이 되면 견디지 못하고 위급해진다<sup>11)</sup>. 1년 四季

節을 보아도 陰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몸의 陰氣와 陽氣도 번갈아 성쇠를 거듭한다. 『素問·脈要精微論』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是故冬至四十五日，陽氣微上，陰氣微下，夏至四十五日，陰氣微上，陽氣微下。陰陽有時，與脈爲期，期而相失，知脈所分，分之有期，故知死時。微妙在脈，不可不察，察之有紀，從陰陽始，始之有經，從五行生，生之有度，四時爲宜，補瀉勿失，與天地如一，得一之情，以知死生。(素問·脈要精微論)

冬至와 夏至 전후의 四十五日은 각각 陽氣가 소생하고 陰氣가 소생하는 때로서 이에 따라서 우리 몸의 陰陽 변화도 일어나므로 이러한 기간을 잘 살펴보면 죽는 시기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 (2) 相克에 따른 예후

五行의 相克 관계에 따라서 자신을 克하는 시기에 병이 가장 위태로워지게 된다. 또한 자신이 주로 用事를 하는 시기에도 병이 심해질 수 있다. 『素問·藏氣法時論』에서 肝病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病在肝，愈於夏，夏不愈，甚於秋，秋不死，持於冬，起於春，禁當風。肝病者，愈在丙丁，丙丁不愈，加於庚辛，庚辛不死，持於壬癸，起於甲乙。肝病者，平旦慧，下晡甚，夜半靜。肝欲散，急食辛以散之，用辛補之，酸瀉之。(素問·藏氣法時論)

肝이 병들면 여름에는 조금 나아지다가 가을에 심해져서 죽을 수 있고<sup>12)</sup> 겨울에는 그대로 유지되다가 다시 봄에 병이 다시 일어난다

齒乾以煩冤腹滿，死。能冬不能夏。陰勝則身寒汗出，身常清，數慄而寒，寒則厥，厥則腹滿，死。能夏不能冬。此陰陽更勝之變，病之形能也。”라 하였다.

12) 『靈樞·本神』에서 “肝悲哀動中，則傷魂，魂傷則狂妄不精。不精則不正，當人陰縮而攣筋，兩脇骨不舉，毛悴色天，死於秋。”라 하여 肝의 精氣가 손상되었을 때 자신을 克하는 계절인 가을에 죽는다고 하였다.

11)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帝曰，法陰陽奈何。岐伯曰，陽勝則身熱，腠理閉，喘滿爲之俯仰，汗不出而熱，

고 하였다. 특히 봄에는 자신과 같은 木氣를 받는 시기이지만 이때 肝이 주관하여 用事를 하므로 오히려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肝熱病者, 小便先黃, 腹痛多臥身熱, 熱爭, 則狂言及驚, 脇滿痛, 手足躁, 不得安臥, 庚辛甚, 甲乙大汗, 氣逆則庚辛死, 刺足厥陰少陽, 其逆則頭痛員員, 脈引衝頭也.(素問·刺熱論)

『素問·刺熱論』에서도 肝熱病者는 庚辛에 심해져서 죽을 수 있지만 오히려 甲乙에도 심해져서 땀을 많이 흘린다고 하였다. 甲乙에는 木氣가 주관하는 때이므로 肝이 用事하지만 오히려 일을 많이 하므로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3) 期日

죽는 날을 예측하는 경우에는 앞서의 경우와 같이 자신을 克하는 기운이 들어오는 날에 위급해지며 또한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凡持真脈之藏脈者, 肝至懸絕急, 十八日死, 心至懸絕, 九日死, 肺至懸絕, 十二日死, 腎至懸絕, 七日死, 脾至懸絕, 四日死.(素問·陰陽別論)

위의 『素問·陰陽別論』에서는 肝心은 陽에 속하고 腎肺는 陰에 속하여 肝과 心은 그 수가 9를 기본으로 한 것이고 腎과 肺는 그 수가 6을 기본으로 한 것이며 脾는 그 수가 5를 기본으로 한 것으로 보았다. 『素問·診要經終論』에서도 五臟病에 대하여 죽는 날짜를 설명하고 있다.

凡刺胸腹者, 必避五藏. 中心者, 環死. 中脾者, 五日死. 中腎者, 七日死. 中肺者, 五日死. 中膈者, 皆爲傷中, 其病雖愈, 不過一歲必死. 刺避五藏者, 知逆從也. 所謂從者, 隔與脾胃之處, 不知者反之. 刺胸者, 必以布撒著之, 乃從單布上刺, 刺之不愈, 復刺. 刺鍼必肅, 刺腫搖鍼, 經

刺勿搖, 此刺之道也.(素問·診要經終論)

한편 『素問·刺禁論』과 『素問·四時刺逆從論』에서는 잘못 刺鍼을 하였을 때 五臟이 상하게 되고 이때 死證이 되어 죽게 되는 날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刺中心, 一日死, 其動爲噫. 刺中肝, 五日死, 其動爲語. 刺中腎, 六日死, 其動爲噦. 刺中肺, 三日死, 其動爲欬. 刺中脾, 十日死, 其動爲吞. 刺中膽, 一日半死, 其動爲嘔.(素問·刺禁論)  
帝曰, 善. 刺五藏, 中心一日死, 其動爲噫. 中肝五日死, 其動爲語. 中肺三日死, 其動爲欬. 中腎六日死, 其動爲噦. 中脾十日死, 其動爲吞. 刺傷人五藏必死, 其動則依其藏之所變候, 知其死也.(素問·四時刺逆從論)

3. 診斷上의 死證

生死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望聞問切 四診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특히 色과 脈을 살피는 것이 중심이 되고 있다. 우선 色과 脈이 합치되는가를 보며 脈에 있어서는 眞藏脈, 人迎脈, 三部九候 등의 변화를 보아 死生을 결정하게 된다.

(1) 決死生

死生을 결단하는 진단법으로 주로 脈과 色을 보고 있다. 脈은 우리 몸속의 五臟六腑의 精氣를 관찰하는 것으로 『內經』에서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 『靈樞·經脈篇』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黃帝曰, 經脈者, 所以能決死生, 處百病, 調虛實, 不可不通.(靈樞·經脈)

經脈으로서 능히 死生을 결단하며 많은 병들을 치료하여 虛實을 조절하면 낫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素問·脈要精微論』에서는 脈診 이외에 五色을 살피서 그것을 종합하여

진단해야 死生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하였다.

黃帝問曰，診法何如。岐伯對曰：診法常以平旦，陰氣未動，陽氣未散，飲食未進，經脈未盛，絡脈調勻，氣血未亂，故乃可診有過之脈。切脈動靜而視精明，察五色，觀五藏有餘不足，六府強弱，形之盛衰，以此參伍，決死生之分。(素問·脈要精微論)

즉 脈의 움직임은 짚은 이후에 다시 얼굴의 五色을 살펴서 五臟의 精氣가 유여한지 부족한지를 보고 六腑의 強弱과 形體의 盛衰를 보아 이 모두를 종합하면 死生의 나뉘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色, 脈, 形體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을 『素問·三部九候論』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帝曰，願聞天地之至數，合於人形，血氣通，決死生，爲之奈何。岐伯曰，天地之至數，始於一，終於九焉。一者天，二者地，三者人，因而三之，三三者九，以應九野。故人有三部，部有三候，以決死生，以處百病，以調虛實，而除邪疾。(素問·三部九候論)

三數로 시작하는 天地人의 至數를 사람에게 적용하여 血氣를 통하여 死生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三部九候 진단법은 上中下 三부를 다시 셋으로 나누어 그 脈과 色을 살펴서 진단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色과 脈과 形을 같이 종합하여야 死生을 제대로 결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13)</sup>.

13) 『靈樞·壽夭剛柔』에서 “所以立形定氣而視壽夭者，必明乎此，立形定氣，而後以臨病人，決死生。黃帝曰，余聞壽夭，無以度之。伯高答曰，牆基卑，高不及其地者，不滿三十而死，其有因加疾者，不及二十而死也。黃帝曰，形氣之相勝，以立壽夭奈何。伯高答曰，平人而氣勝形者壽，病而形肉脫，氣勝形者死，形勝氣者危矣。”라 하여 形과 氣가 서로 調和를 이루는지를 진단하여 死生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또한 氣가 形을 勝하여 引導하는 경우에는 오래 살지만 만약에 形이 氣를 勝하거나 病에 들어서 비정상적으로 氣가 形을 勝하는 경우에는 일찍 죽는다고 하였다.

## (2) 眞藏脈

脈을 짚어서 死生을 결단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眞藏脈이 밖으로 드러나는가의 여부이다. 眞藏脈이란 五臟 精氣의 특성이 胃氣에 의해 감추어지지 않고 그대로 외부로 드러나는 것으로 胃氣의 완화 작용을 받지 않고 精氣가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脈象으로 보고 있다.

肝見庚辛死，心見壬癸死，脾見甲乙死，肺見丙丁死，腎見戊己死，是爲眞藏見，皆死。(素問·平人氣象論)

『素問·平人氣象論』에서는 五臟의 相克 관계로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眞藏脈이 드러나나 이와 같은 脈象이 보이면 죽는다고 하였다. 眞藏脈은 五臟의 精氣를 표현한 것이므로 陰에 속하고 胃氣는 水穀의 精氣로서 陽에 속한다. 이러한 陰陽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건강한 상태인데 만약 胃氣가 외부에서 쇠하면 내부의 精氣가 그대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위중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黃帝問曰，人有四經十二從，何謂。岐伯對曰，四經應四時，十二從應十二月，十二月應十二脈。脈有陰陽，知陽者知陰，知陰者知陽。凡陽有五，五五二十五陽。所謂陰者，眞藏也，見則爲敗，敗必死也；所謂陽者，胃脘之陽也。別於陽者，知病處也；別於陰者，知死生之期。三陽在頭，三陰在手，所謂一也。別於陽者，知病忌時；別於陰者，知死生之期。謹熟陰陽，無與衆謀。所謂陰陽者，去者爲陰，至者爲陽；靜者爲陰，動者爲陽；遲者爲陰，數者爲陽。凡持眞脈之藏脈者，肝至懸絕急，十八日死，心至懸絕，九日死，肺至懸絕，十二日死，腎至懸絕，七日死，脾至懸絕，四日死。(素問·陰陽別論)

『素問·陰陽別論』의 내용을 살펴보면 脈에 있어서 陰陽을 잘 파악해야 하는데 여기서 陰이란 眞藏의 기운으로 이것이 드러나면 敗하

게 되어 반드시 죽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陽이란 胃脘의 陽氣를 말하는데 陰의 眞藏氣를 감싸주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陰陽을 잘 살피서 병의 位置, 預後, 緩急, 輕重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실제 眞藏脈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平人之常氣稟於胃, 胃者平人之常氣也, 人无胃氣曰逆, 逆者死. 春胃微弦曰平, 弦多胃少曰肝病, 但弦无胃曰死, 胃而有毛曰秋病, 毛甚曰今病. 藏眞散於肝, 肝藏筋膜之氣也, 夏胃微鉤曰平, 鉤多胃少曰心病, 但鉤无胃曰死, 胃而有石曰冬病, 石甚曰今病. 藏眞通於心, 心藏血脈之氣也, 長夏胃微奕弱曰平, 弱多胃少曰脾病, 但代无胃曰死, 奕弱有石曰冬病, 弱甚曰今病. 藏眞濡於脾, 脾藏肌肉之氣也, 秋胃微毛曰平, 毛多胃少曰肺病, 但毛无胃曰死, 毛而有弦曰春病, 弦甚曰今病. 藏眞高於肺, 以行榮衛陰陽也. 冬胃微石曰平, 石多胃少曰腎病, 但石无胃曰死, 石而有鉤曰夏病, 鉤甚曰今病. 藏眞下於腎, 腎藏骨髓之氣也. (素問·平人氣象論)

보통 사람은 水穀을 섭취하여 胃로부터 기운을 받는데 만약 胃氣가 없으면 거스르게 되어 죽는다. 예를 들어 봄에는 弦脈이 조금 드러나는 것이 정상인데 만약 弦脈이 강하게 나타나고 胃氣가 적으면 肝에 병이 있는 것이고 단지 弦脈만 나타나고 胃氣가 없으면 죽는 것이다. 肝의 眞藏脈의 象에 대하여 『素問·平人氣象論』과 『素問·玉機眞藏論』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人以水穀爲本, 故人絕水穀則死, 脈無胃氣亦死. 所謂無胃氣者, 但得眞藏脈不得胃氣也. 所謂脈不得胃氣者, 肝不弦腎不石也. 太陽脈至, 洪大以長. 少陽脈至, 乍數乍疎, 乍短乍長. 陽明脈至, 浮大而短. 夫平心脈來, 累累如連珠, 如循琅玕, 曰心平, 夏以胃氣爲本. 病心脈來, 喘喘連屬, 其中微曲, 曰心病. 死心脈來, 前曲

後居, 如操帶鉤, 曰心死. 平肺脈來, 厭厭聶聶, 如落榆莢, 曰肺平, 秋以胃氣爲本. 病肺脈來, 不上不下, 如循雞羽, 曰肺病. 死肺脈來, 如物之浮, 如風吹毛, 曰肺死. 平肝脈來, 奕弱招招, 如揭長竿末梢, 曰肝平, 春以胃氣爲本. 病肝脈來, 盈實而滑, 如循長竿, 曰肝病. 死肝脈來, 急益勁, 如新張弓弦, 曰肝死. 平脾脈來, 和柔相離, 如雞踐地, 曰脾平, 長夏以胃氣爲本. 病脾脈來, 實而盈數, 如雞舉足, 曰脾病. 死脾脈來, 銳堅如鳥之喙, 如鳥之距, 如屋之漏, 如水之流, 曰脾死. 平腎脈來, 喘喘累累如鉤, 按之而堅, 曰腎平, 冬以胃氣爲本. 病腎脈來, 如引葛, 按之益堅, 曰腎病. 死腎脈來, 發如奪索, 辟辟如彈石, 曰腎死. (素問·平人氣象論)

眞肝脈至, 中外急, 如循刀刃責責然, 如按琴瑟弦, 色青白不澤, 毛折, 乃死. 眞心脈至, 堅而搏, 如循薏苡子累累然, 色赤黑不澤, 毛折, 乃死. 眞肺脈至, 大而虛, 如以毛羽中人膚, 色白赤不澤, 毛折, 乃死. 眞腎脈至, 搏而絕, 如指彈石辟辟然, 色黑黃不澤, 毛折, 乃死. 眞脾脈至, 弱而乍數乍疎, 色黃青不澤, 毛折, 乃死. 諸眞藏脈見者, 皆死, 不治也. 黃帝曰, 見眞藏曰死, 何也. 岐伯曰, 五藏者, 皆稟氣於胃, 胃者五藏之本也, 藏氣者, 不能自致於手太陰, 必因於胃氣, 乃至於手太陰也, 故五藏各以其時, 自爲而至於手太陰也. 故邪氣勝者, 精氣衰也, 故病甚者, 胃氣不能與之俱至於手太陰, 故眞藏之氣獨見, 獨見者病勝藏也, 故曰死. 帝曰, 善. (素問·玉機眞藏論)

이와 같이 眞藏脈이란 胃氣의 뒷받침이 없으면 五臟의 精氣만 노출된 것으로 病의 진행상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五臟의 精氣만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後天 胃氣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결국에는 精氣가 고갈되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 (3) 人迎脈

診脈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氣口脈과 人迎脈을 들 수 있는데 人迎脈은 우리 몸의 陽氣를 살피고 氣口脈은 五臟의 精氣 즉 陰氣를 살피게 된다. 이 두 가지의 함께 살펴 陰陽의 조화를 관찰하여 死生을 진단하게 된다. 『素問·六節藏象論』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故人迎一盛病在少陽，二盛病在太陽，三盛病在陽明，四盛已上爲格陽。寸口一盛病在厥陰，二盛病在少陰，三盛病在太陰，四盛已上爲關陰。人迎與寸口俱盛，四倍已上爲關格。關格之脈贏，不能極於天地之精氣，則死矣。(素問·六節藏象論)

人迎脈이 氣口脈보다 盛하는 정도에 따라 少陽, 太陽, 陽明으로 병이 진행되고 氣口脈이 人迎脈보다 盛한 정도에 따라 厥陰, 少陰, 太陰의 순으로 병이 진행된다. 陽이 盛한 경우를 格陽이라 하며 陰이 盛한 경우를 關陰이라 하여 모두 陰陽의 기운이 막힌 것을 말하는데 만약 人迎과 氣口脈이 각각 네배 이상 성할 경우에는 죽게 된다고 하였다. 즉, 陰陽의 기운이 과도하게 勝하면 죽음에 이른다는 것이다.

人迎大一倍於寸口，病在足少陽，一倍而躁，在手少陽。人迎二倍，病在足太陽，二倍而躁，病在手太陽。人迎三倍，病在足陽明，三倍而躁，病在手陽明。盛則爲熱，虛則爲寒，緊則爲痛痺，代則乍甚乍間。盛則瀉之，虛則補之，緊痛則取之分肉，代則取血絡，且飲藥，陷下則灸之，不盛不虛，以經取之，名曰經刺。人迎四倍者，且大且數，名曰溢陽，溢陽爲外格，死不治。必審按其本末，察其寒熱，以驗其藏府之病。

寸口大於人迎一倍，病在足厥陰，一倍而躁，在手心主。寸口二倍，病在足少陰，二倍而躁，在手少陰。寸口三倍，病在足太陰，三倍而躁，在手太陰。盛則脹滿，寒中食不化，虛則熱中，出糜少氣，溺色變，緊則痛痺，代則乍痛乍止。盛則瀉之，虛則補之，緊則先刺而後灸之，代則取

血絡，而後調之，陷下則徒灸之，陷下者，脈血結於中，中有著血，血寒，故宜灸之，不盛不虛，以經取之。寸口四倍者，名曰內關，內關者，且大且數，死不治。必審察其本末之寒溫，以驗其藏府之病。(靈樞·禁服)

『靈樞·禁服篇』에서는 더 자세하게 人迎脈과 氣口脈이 盛할 때 병이 있는 부위까지 설명하고 있다. 「六節藏象論」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삼양에서는 少陽, 太陽, 陽明의 순으로 陽氣가 盛해지고 三陰에서는 厥陰, 少陰, 太陰의 순으로 陰氣가 盛해지므로 각각에 해당하는 경락 부위에 병이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 經絡을 刺鍼하여 치료하게 된다<sup>14)</sup>.

#### (4) 三部九候法

三部九候 진단법은 天地人의 三數로서 사람을 上部, 中部, 下部로 나누고 그것을 다시 셋으로 나누어 아홉 부분으로 진단하는 것이다. 이 때에 각 부위의 상태와 搏動을 살펴서 邪氣의 소재를 파악하여 死生을 결정하게 된다.

黃帝問曰，余聞九鍼於夫子，衆多博大，不可勝數。余願聞要道，以屬子孫，傳之後世，著之骨髓，藏之肝肺，歛血而受，不敢妄泄，令合天道，必有終始，上應天光星辰歷紀，下副四時五行，貴賤更互，冬陰夏陽，以人應之奈何，願聞其方。岐伯對曰，妙乎哉問也。此天地之至數。帝曰，願聞天地之至數，合於人形，血氣通，決死生，爲之奈何。岐伯曰，天地之至數，始於一，終於

14) 『靈樞·終始』에서 “人迎一盛，病在足少陽，一盛而躁，病在手少陽。人迎二盛，病在足太陽，二盛而躁，病在手太陽。人迎三盛，病在足陽明，三盛而躁，病在手陽明。人迎四盛，且大且數，名曰溢陽，溢陽爲外格。脈口一盛，病在足厥陰，厥陰一盛而躁，在手心主。脈口二盛，病在足少陰，二盛而躁，在手少陰。脈口三盛，病在足太陰，三盛而躁，在手太陰。脈口四盛，且大且數者，名曰溢陰，溢陰爲內關，內關不通，死不治。人迎與太陰脈口俱盛四倍以上，命曰關格，關格者，與之短期。”이라 하여 三陰三陽의 各 經絡에 刺鍼하여 치료하라고 하였다.

九焉。一者天，二者地，三者人，因而三之，三三者九，以應九野。故人有三部，部有三候，以決死生，以處百病，以調虛實，而除邪疾。(素問·三部九候論)

三部九候에 따라서 死證이 나타나는 것을 『素問·三部九候論』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각각의 부위에 나타나는 脈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死證이 되며 또한 서로 비교하여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死證이 됨을 말하고 있다.

帝曰，決死生奈何。岐伯曰，形盛脈細，少氣不足以息者，危。形瘦脈大，胸中多氣者，死。形氣相得者，生。參伍不調者，病。三部九候皆相失者，死。上下左右之脈相應如參春者，病甚。上下左右相失不可數者，死。中部之候雖獨調，與衆藏相失者，死。中部之候相減者，死。目內陷者死。帝曰，何以知病之所在。岐伯曰，察九候獨小者，病。獨大者，病。獨疾者，病。獨遲者，病。獨熱者，病。獨寒者，病。獨陷下者，病。以左手足上，上去踝五寸按之，庶右手足當踝而彈之，其應過五寸以上，蠕蠕然者，不病。其應疾，中手渾渾然者，病。中手徐徐然者，病。其應上不能至五寸，彈之不應者，死。是以脫肉身不去者死。中部乍疎乍數者，死。其脈代而鉤者，病在絡脈。九候之相應也，上下若一，不得相失。一候後則病，二候後則病甚，三候後則病危。所謂後者，應不俱也。察其府藏，以知死生之期。(素問·三部九候論)

三部九候의 상태를 살펴서 上下左右가 서로 調和를 잃었을 때에는 죽게 된다. 또한 각각의 장소에서 나타나는 脈象을 살펴서 이상이 있을 때에도 病이 오거나 죽음에 까지 이르게 됨을 말하였다.

### 5) 望診

望診은 脈과 더불어 중요한 진단법으로서 眞藏脈과 같이 色이 강하게 드러날 경우에는

死證에 해당되며 脈이 胃氣에 쌓여 은은히 드러나는 것을 건강한 상태로 보았다. 『素問·五藏生成篇』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是故多食鹹則脈凝泣而變色。多食苦則皮槁而毛拔。多食辛則筋急而爪枯。多食酸則肉胔膊而骨揭。多食甘則骨痛而髮落。此五味之所傷也。故心欲苦，肺欲辛，肝欲酸，脾欲甘，腎欲鹹，此五味之所合也。五藏之氣。故色見青如草茲者死，黃如枳實者死，黑如炁者死，赤如衄血者死，白如枯骨者死，此五色之見死也。青如翠羽者生，赤如雞冠者生，黃如蟹腹者生，白如豕膏者生，黑如烏羽者生，此五色之見生也。生於心，如以縞裹朱，生於肺，如以縞裹紅，生於肝，如以縞裹紺，生於脾，如以縞裹牝，生於腎，如以縞裹紫，此五藏所生之外榮也。(素問·五藏生成篇)

예를 들어 白色의 경우에는 마른 뼈와 같이 윤기가 없고 창백해서는 안되며 돼지의 기름처럼 은은한 흰 색을 나타낼 때 좋은 상태로 보고 있다. 五色이 原色으로 나타내거나 창백하고 윤기가 없는 것은 死證에 속하고 은은하고 윤기가 있으면서 부드러운 것을 건강한 色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診斷法을 종합해보면 死生을 결정하는 것은 당장 급하게 쓰러져 죽는 것을 말하기 보다는 陰陽의 不調和나 五行의 相克 傳變으로 인하여 죽음으로 향하고 있음을 미리 예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死生을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眞藏脈이 나타나는지의 여부를 보아서 五臟의 精氣가 밖으로 노출되면 위험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것은 色象의 望診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色脈의 象이 만약 相克의 관계로서 나타날 경우에는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보았다.

人迎脈口 診斷法과 三部九候. 診斷法에서는 陰陽의 偏盛으로 인한 不調和와 三部九候 간 의 脈動의 不均衡을 보고서 死生을 결정하였

다. 결국 陰陽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病의 예후가 좋지 않다고 본 것이다.

### Ⅲ. 結論

『黃帝內經』의 死證 條文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우선 죽을 병이 가지고 있는 醫哲學의 의미를 음미해볼 수 있었으며 死證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어떻게 가능했으며 死證에 해당하는 疾症에는 그 당시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가를 살펴보았다.

1. 『黃帝內經』에서 말하는 死證이란 여러 가지 의미를 살펴보면,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단정과 확실한 진단 이외에 잘못 대처하였을 때에 죽음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는 경고의 내용도 있으며 또한 의식불명의 假死 상태를 死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즉, 死證 중에서 죽음 직전을 의미하거나 실제로 죽은 것으로 단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진단에 있어서는 生死를 결정할 만큼 중요하고 세밀하며 깊이 감추어져 있는 부분까지 찾아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 우리 몸에서 질병의 상태를 陰陽의 조화가 깨지거나 五行의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조화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중되거나 오래 지속되어 깊은 병이 되면 위중한 상태에 빠져 죽음을 예고하게 된다. 여기에는 陰陽이 각각 지나치게 盛하거나 또는 虛해졌을 때 死證에 이르거나 또는 五臟病으로 우리 몸의 가장 깊숙한 부분까지 병이 들어 죽게 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五行의 相克으로 병이 진행되어 악한 臟腑가 손상을 받거나 醫師의 잘못으로 誤治하여 병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3. 진단상 死證의 판정 못지않게 언제 위급하게 되는가 하는 예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주로 예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타나며 가깝게는 하루의 晝夜에 따라서, 멀리는 1년 중 사계절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또한 相生 相克의 관계에 따라서 서로 극하는 시간에 가장 위급해 지므로 그에 따라 예후를 결정하게 된다. 陰이 성할 때와 陽이 성할 때 여름과 겨울에 따라 외부 천지의 陽氣와 陰氣를 받아 병이 더욱 위급하게 된다. 이와 같이 陰陽의 시간 변화에 따라서 우리 몸의 陰氣와 陽氣도 변갈아 盛衰를 거듭한다. 五行의 相克 관계에 따라서 자신을克하는 시기에 병이 가장 위태로워지게 되는데 오히려 자신이 주로 用事를 하는 시기에도 병이 심해질 수 있다.

4. 生死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望聞問切 四診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특히 色과 脈을 살피는 것이 중심이 되고 있다. 色과 脈이 합치되는가를 보며 脈에 있어서는 眞藏脈, 人迎脈, 三部九候 등의 변화를 보아 死生을 결정하게 된다. 眞藏脈이란 五臟 精氣의 특성이 그대로 외부로 드러나는 것으로 胃氣의 완화를 받지 않고 精氣가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맥상으로 보고 있다. 또한, 人迎脈은 우리 몸의 陽氣를 살피고 氣口脈은 五臟의 精氣 즉 陰氣를 살피게 되는데 두가지의 함께 살펴 陰陽의 조화를 관찰하여 死生을 진단하게 된다. 三部九候 진단법은 上中下 三部를 다시 셋으로 나누어 그 脈과 色을 살펴서 진단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色과 脈과 形을 같이 종합하여야 死生을 제대로 결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 參考文獻

1. 金達鎬：注解補註黃帝內經靈樞. 서울, 醫聖堂, 2002.
2. 金達鎬, 李鍾馨：注解補註黃帝內經素問. 서울, 醫聖堂, 2001.
3. 朴贊國：縣吐國譯黃帝內經素問注釋. 서울, 慶熙大學校出版局, 1998.
4. 楊上善：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86.
5. 嚴東明：營衛에 대한 考察, 慶熙大學校大學院, 1996.
6. 王琦의 4인：黃帝內經素問今釋. 서울, 成輔社, 1983.
7. 王冰：補注黃帝內經. 서울, 一中社, 1991
8. 왕홍도외：黃帝內經研究大成. 北京, 北京出版社, 1997.
9. 張隱庵, 馬元臺：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서울, 成輔社, 1975.
10. 程士德 主編：素問注釋匯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11. 河北醫學院：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12. 洪元植：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13. 洪元植：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